

# 생애 첫 올림픽... “당당하게 연기할래요”

**피겨 신지아 밀라노 입성**

주니어 시절엔 한국 간판 역할 시니어 무대선 기대에 못 미쳐 4대륙 선수권서도 6위에 그쳐 “부모님이 함께 있어줘 늘 든든 자신감 잃지 않고 메달에 도전”



기 어려웠다.

신지아는 5일(한국시간) 설렘과 기대가 묻어나는 표정으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 결전지인 이탈리아 밀라노에 입성했다.

밀라노 말펜사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신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어제까지는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실감 나는 것 같다”며 “마냥 설렌다”고 말했다.

주니어 시절부터 한국 피겨 여자 싱글 간판으로 활약해온 신지아는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2025-2026시즌 다소 부진한 성적을 냈다.

체형 변화로 인해 점프가 흔들리면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프리 시리즈 2개 대회에서 모두 입상에 실패했다.

그는 지난 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반등하는 듯했으나 지난 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ISU 4대륙선수

권대회에서 점프가 다시 흔들리면서 6위에 머물렀다.

올림픽 리허설 무대를 망친 탓일까. 그는 귀국길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인터뷰 요청을 사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신지아는 멘털을 상당히 재무장한 듯 보였다.

그는 “4대륙선수권대회 쇼트 프로그램에선 실수가 많았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어느 정도 만회했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신지아는 올림픽을 앞두고도 평소와 다름없는 루틴을 유지한다. 그는 “올림픽이라고 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거나, 휴식 시간에 즐길 것들을 따로 가져오진 않았다”며 “쉬는 시간에는 그동안 좋은 연기를 펼쳤던 영상들을 돌려보며 대회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올림픽에는 부모님이 현장을 찾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예정이다. 신지아는 “부모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며 “자신감을 잃지 않고 이번 대회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글·사진·연습스**



신지아

## 경기 첫날부터 ‘정전’ 컬링장 황당 해프닝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에 앞서 경기 일정이 시작된 첫날부터 경기장이 정전되는 황당한 상황이 일어났다.

5일(한국시간) 대회 컬링 믹스더블 라운드로빈 1차전이 열린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선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전이 발생했다.

이번 대회는 7일 오전 4시 30분부터 밀라노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으로 막을 올리는데, 그에 앞서 이날 컬링 믹스더블 라운드로빈으로 경기 일정에 돌입했다.

각 시트에서 1등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정전이 발생, 장애가 어두컴컴해지고 전광판도 꺼지면서 선수들은 경기를 중단해야 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을 통틀어 첫 경기에 나선 김선영(강릉시청)-정영석(강원도청)을 비롯한 선수들은 조치가 이뤄지는 동안 전략을 상의하는 등 비교적 차분히 기다렸다.

대기가 다소 길어지자 김선영은 상대 스웨덴 선수인 이사벨라 브라노와 함께 브룸을 들고 기타를 연주하는 듯한 동작으로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명과 전광판이 다시 켜지자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이내 경기는 재개됐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이 수습되긴 했으나 경기 일정 첫날부터 일어난 정전은 이번 대회 준비 과정을 돌려싸고 이어진 우려를 더 키우게 됐다.

이번 올림픽은 밀라노와 400km가량 떨어진 코르티나담페초를 비롯해 이탈리아 곳곳에서 분산 개최된다.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은 1950년대 건설된 곳으로, 1956년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회식과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경기가 열린 바 있다.



차준환

## “K팝·K피겨스타 떴다” 뜨거운 환영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서울시청)이 이탈리아 현지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받으며 결전에 입성했다.

차준환은 5일(한국시간) 피겨 대표팀 동료들과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의 관문인 이탈리아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했다.

차준환은 “이렇게 많은 팬이 반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응원에 힘입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말펜사 공항엔 수십 명의 현지 팬들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피겨 대표팀이 탑승한 항공편에는 밀라노 올림픽 한국 대표팀의 홍보대사로 피겨 스케이팅 선수 출신이자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의 멤버인 성훈도 함께해 현지 K팝 팬들이 입국장에 대거 몰렸다.

성훈이 입국장으로 나오자 현장은 아

밀라노 공항 현지 팬 몰려 후끈 엔하이픈 멤버 성훈 동행 열광 차준환 선수에 사인 요청 공세

수라장이 됐다. 수십 명의 현지 팬들은 성훈을 둘러싸고 연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팬들은 뒤이어 등장한 차준환에게도 몰려 사인을 요청했다. 일부 팬들은 미리 준비한 선물과 꽃을 건네기도 했다.

차준환은 피곤한 기색 없이 팬들의 사인 요청에 응하며 밝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올림픽 출전이 실감 나기 시작했다”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선수권대회를 마친 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몸 상태를 회복하며 반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연기를 펼치기 위해선 현지 적응을 잘해야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부터 숙면하며 컨디션 관리를 시작했다”며 “경기 날까지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차준환은 세 번째 올림픽 무대에 선다.

그는 휘문고 재학 시절이던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종합 15위를 기록했고,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는 감동적인 연기로 종합 5위에 올랐다.

차준환은 이번 대회를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라는 생각으로 출전한다. 그는 “많이 설렌다”며 “이번 올림픽에선 단체전(팀 이벤트)과 개인전을 모두 출전하는데, 단체전부터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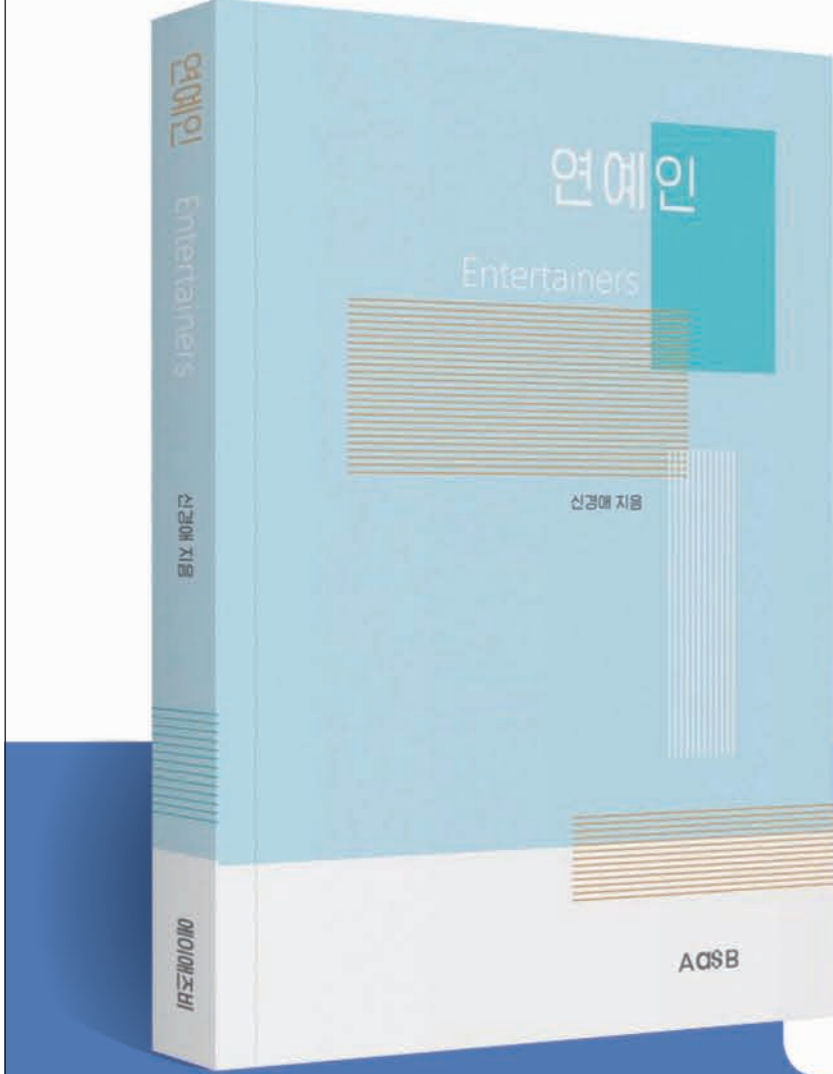
차준환이 출전하는 피겨 경기는 8일부터 시작한다.

##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과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제’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

